

물가를 잡아라... 도, 다방면 노력 돋보여

도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도입·착한가격업소 지원 논의

물가를 잡기 위한 전북도의 다방면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2년 제4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지방물가 선제적 안정방안에 대한 시군의 협력을 요청하였고, 지난달 14일에 개최한 도·시군 경제부시장 회의에서 의결한 예대 지방공공요금의 동결에 대한 감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자는 전북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상수도요금의 한시적 감면정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를 사용해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군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면, 원수사용요금의 50%까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226개 시·군·구 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를 사용하는 곳은 131개이며, 그중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전북도는 무주를 제외한 13곳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활용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곳은 군산, 장수, 고창 등 3곳에 불과하다.

회의 직후 몇몇 지자체에서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여,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지역의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의 대상이 됐다.

현재 8개 시군에서만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요금, 상수도요금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 국비지원을



물가를 잡기 위한 전북도의 다방면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사진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4회 시·군 부단체장회의.

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다가오는 휴가철 및 하반기 물

가안정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손을 맞잡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하반기 물가안정화를 위하여 전북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군과 협력해 도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NH농협은행 '올원타임 영업점 방문예약' 시작

NH농협은행이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가까운 영업점에서 원하는 금융전문가와 상담 받을 수 있는 '올원타임(All One Time) 방문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영업점, 방문일자, 시간, 상담업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이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된다. 도착 알림 버튼을 누르면 영업점 상담직원에 고객 방문이 실시간으로 통지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농작물·가축, 폭염피해 최소화' 농진청, 현장밀착 기술지원단 운영

노지채소 재배농가·온실 기술 중점 지원 과수 후기 생육 안내... 축종별 관리 요령도

농촌진흥청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재해 대응 지역담당관과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직·지도직 직원으로 구성된 지역담당관 158명을 한시적으로 '여름철 재해 대응 지역담당관'으로 재편했다. 이와 함께 식량·과수·채소·인삼·축산 5개 분야의 내부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역담당관은 각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체 영농현장을 점검하고 기상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작물·축종별 기술지원 사항을 파악해 관련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장 기술지원단은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오는 28일까지 폭염 대

응 농작물·가축 관리 활동을 펼친다. 특히 고추, 고랭지배추·무 등 노지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작물별 물 관리 기술을 중점 지도한다. 수박·토마토 등 시설 온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차광(빛가림), 환풍, 안개 분무 등 온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의 경우 열매 달림이 좋지 않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후기 생육 관리를 안내한다. 또 배수로 정비, 토양유실 방지, 미세살수, 조기 수확 등 집중 호우와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보급에도 나선다.

축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축종별로 고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와 신선한 물 공급을 강조한다. 농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차광막 설치와 지붕 위 물 뿌리기, 정기적인 소독 등 관리요령도 알려준다. /뉴시스

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2조 ↓

가계대출 잔액 697조4367억원... 올해 들어 11조 감소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7개월간 11조원 이상이 줄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7조4367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2155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말보다 11조5616억원이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새로 대출을 실행하는 차주보다 기존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서 투자처가 부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대출 감소는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주담대를 가진 차주들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금리 저항이 큰 상황"이라며 "가계대출은 주택 구입 관

련 대출의 비중이 큰데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06조6804억원으로 전월보다 91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줄면서 가계대출 감소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28조8256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8533억원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월(1조1204억원)보다 커졌다.

지난해에는 자산시장의 높은 수익률과 저금리에 대출로 투자에 나선 '영끌족'이 많았다. 최근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0%대를 넘어선 데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이 침체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80조4676억원이다. 전월보다 5256억원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은 6개월 연속 늘었다. 전월 대비 4946억원 늘어난 133조40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비롯한 실수요 대출을 중심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성혁 신한은행 부행장(CFO)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가계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등을 전라상표"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예·적금을 비롯한 수신 잔액은 늘어났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834조292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678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712조4491억원으로 전월 대비 27조3532억원 늘었다. 정기적금은 38조1167억원으로 6524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688조3442억원으로 전월보다 37조336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성 대기 자금 성격의 요구불예금이 줄어들고 정기예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라며 "상반기 동안 이어진 '역머니무브' 징조가 빅스텝 이후로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은행, 휴가철 맞아 썸머 페스티벌 경품 '풍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일부터 28일까지 JB카드와 함께하는 이벤트 '별☆다주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1일 밝혔다. '별☆다주 썸머 페스티벌'은 JB카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JB캐시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을 비롯해 2등 10명에게 60만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 3등 50명에게는 여행용 파우치를 증정한다.

또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161명을 대상으로 J머니 1만원이 적립된다.

전 업종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50만원 당 추첨 기회가 1회 제공되며, 간편 결제 또는 해외이용액 50만원 이상 이용 시에는 추첨권 1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포함한 해외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후 할부 전환 시 2~5개월 수수료 면제해 주며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JB카드와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감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